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01 자연환경과 생업			
자연환경	범위	• 동서(일본 열도 ~ 티베트 고원), 남북(베트남 ~ 몽골 고원)	
	국가	•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	
지형과 기후	지형	• 서고동저(서쪽에 티베트고원, 동쪽에 구릉 및 평원)	
	기후	• 온대, 건조, 냉대, 열대 등 다양한 기후, 계절풍의 영향(여름이 덥고 다습, 겨울에 춥고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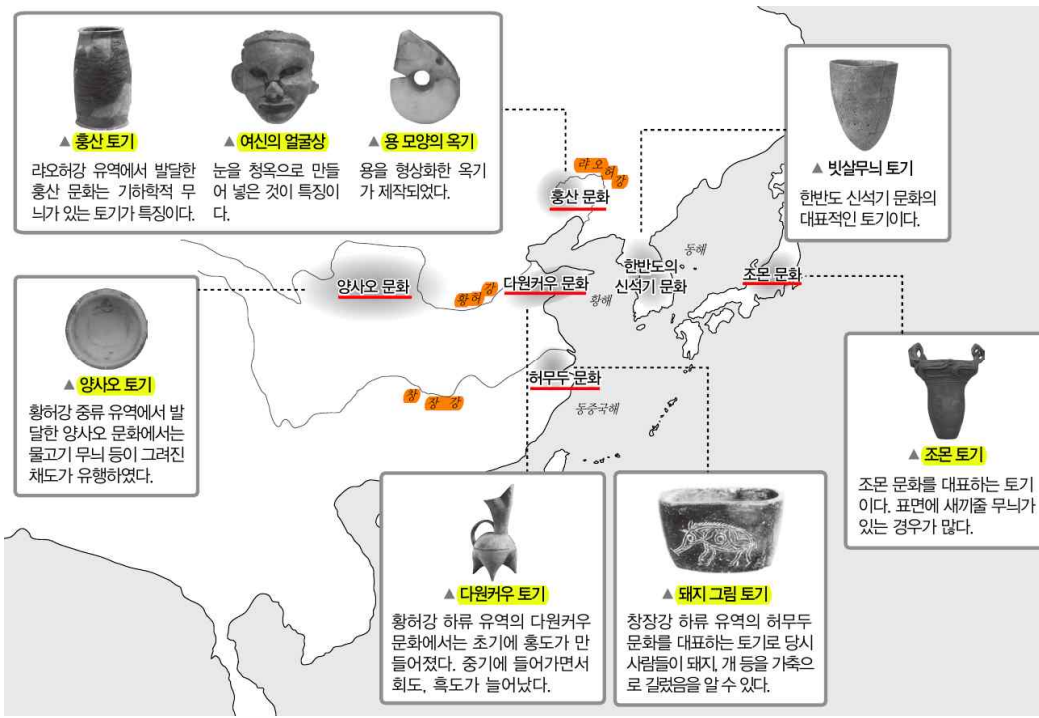


02 선사 시대의 생활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	• 베이징인, 산둥둥인(산둥동인), 덕천인, 미나토가와인(오키나와)
	생활	• 텐석기 , 불과 언어 사용, 수렵·채집·어로 활동, 무리 생활, 평등 사회, 이동 생활(동굴이나 막집 거주)
신석기 시대	도구	• 간석기 , 토기, 뼈바늘 사용
	경제·사회	• 농경과 목축의 시작(신석기 혁명), 씨족장의 권한 강화, 자연 현상이나 조상 등을 신으로 모시고 공동 제사 의식 거행

03 ★신석기 문화

중원 · 만주 지역	[홍산] 문화	랴오허강	• 뉴허량 신전 유적, 채도(원통형 토기), 여신의 얼굴상, 용 모양의 옥기 등	
	[양사오] 문화	황허강 중류	• 토기 표면에 물감 등을 사용하여 무늬를 그려 넣은 채도 제작	⇒ [룽산] 문화로 발전(흑도 발달)
	[다원커우] 문화	황허강 하류	• 홍도(전기) ⇒ 백도·흑도(후기)	
	[허무두] 문화	창장강 하류	• 벼농사 시작(범씨 자국 토기), 흑도(돼지 그림 토기 등)·홍도, 고상 가옥	⇒ 량주 문화로 발전(옥기 발달)
한반도	토기		•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대표적) 등	
일본 열도	[조몬] 문화		• 조몬 토기, 토우 제작, 농경보다는 수렵·채집·어로로 생계(生計)유지	



[**양사오**] 문화



[**룽산**] 문화



[**허무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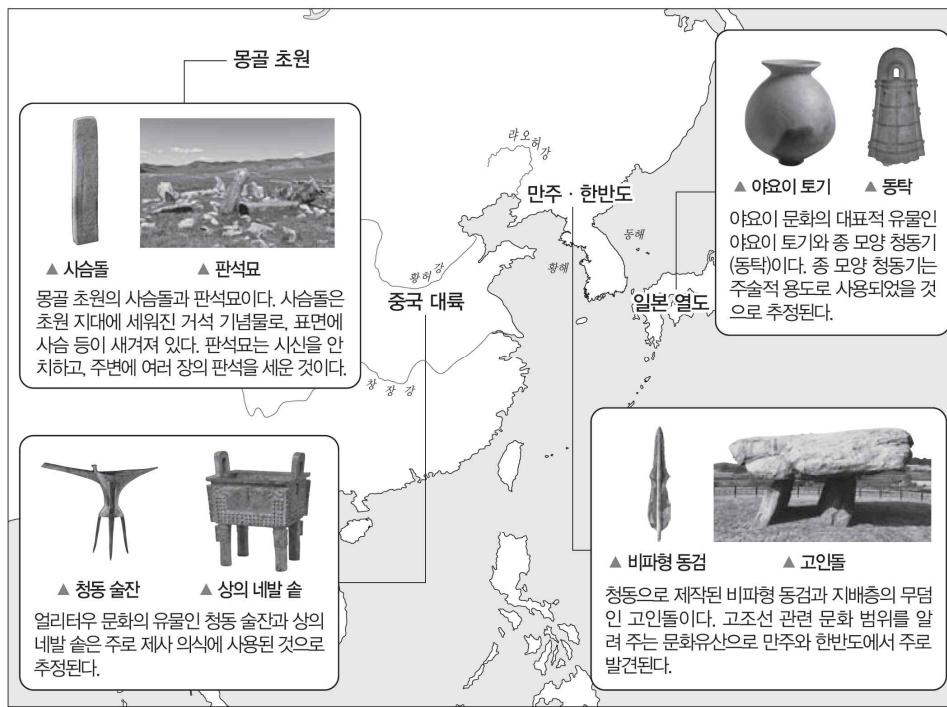
여성 토우

04 청동기 시대		
도구	[청동기]	• 무기, 의식용 도구, 장신구 등 주로 지배층의 소유
	[석기]	• 농기구 등 실생활 도구로 사용
경제	• 농업 생산력의 발전, 벼농사의 확산 → 잉여 생산물 축적	
사회	• 무기 발달로 인한 정복 전쟁 심화, 사유 재산제의 확산 → 계급 분화와 권력 발생, 부족 간 통합 → 국가의 형성(중국의 하·상·주, 한반도의 고조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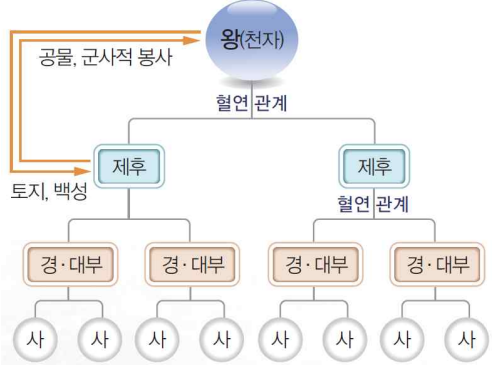


〈반달 도검〉

05 ★청동기 문화		
중국 황허강 유역	[얼리터우] 문화	• 기원전 2000년경, 룽산 문화권에서 발전, 청동 술잔 등 제작, 궁전터와 성벽을 통해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상(商)] 왕조	• 기원전 1600년경, 청동제 무기·제사용 도구 등 제작
[몽골] 지역	특징	•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전, 청동제 무기, 마구(馬具), 사슴돌, 판석묘(板石墓),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을 남김
만주·한반도	도구·유적	•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등장, 비파형 동검·화살촉·청동 거울 등 사용, 무덤 양식으로 고인돌 제작
일본 열도	[야요이] 문화	•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을 비롯하여 청동기·철기 수용,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공존 • 종 모양 청동기(동탁)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 제작,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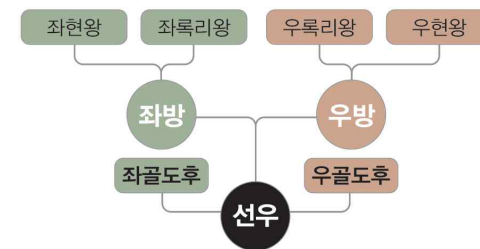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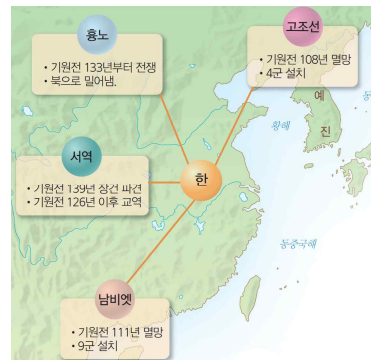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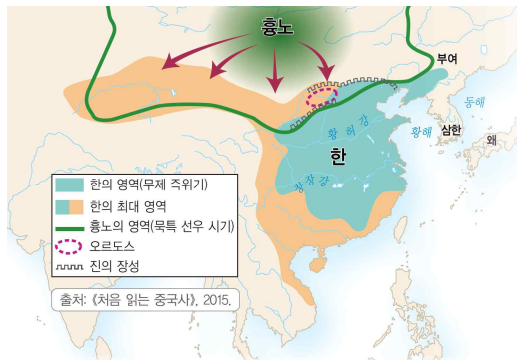


06 국가의 출현(1)

중원 지역	하(夏)		• 문헌 기록상 최초의 왕조, 얼리터우 문화를 그 유적으로 추정		
	상(商)		•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갑골 문자), 은허(수도 유적)		
	주(周)		• 기원전 1046년경 성립, 수도 호경 • 봉건제 실시[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지방은 제후에게 분배, 혈연관계 기반], 천명사상과 덕치 강조 [자어(子魚)가 말하기를] “옛날 무왕(武王)께서는 상을 정벌하셨으며, 성왕께서는 이를 안정시키시고 밝은 덕을 가진 자를 가려 뽑아 주 왕실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왕의 아우인 주공(周公)께서는 왕실을 도와 천하를 다스리시며 주 왕실을 돈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공의 아들인 노공(魯公)에게 동으로 장식한 수레와 용이 그려진 깃발, 하후씨의 옥, 봉보의 활, 그리고 멸망한 상의 유민 여섯 종족을 하사하셨습니다. …… 노공에게 토지와 관리 등을 주시고, 멸망한 상과 엄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 『좌전』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		•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건웅족의 침입으로 주의 동천[호경 ➡ 낙읍(뤄양)] •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세력이 강한 제후(춘추 5패)가 정국 주도(존왕양이)	
		전국 시대		• 기원전 403년 봉건제 붕괴, 전국 7웅 대두(하극상, 약육강식의 시대) • 상앙(?~기원전 338) 등이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 변법 추진[진(秦), 제1차 변법(기원전 359년)]	
		변화	정치	• 군현제(지방을 군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 · 관료제 도입 •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 실시	
			경제	•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성화, 도시 발달	
사회			•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제자백가 의 등장, 철제 무기 보급(군사력 강화, 전쟁 규모 확대)		
 * 갑골문  * 주 왕조의 봉건제  * 춘추 전국 시대					

07 ★국가의 출현(㉡)

중원 지역	진(秦)	[시황제] (~기원전 210)	- 전국 시대 통일(기원전 221) - 황제 칭호 최초 사용, 3공 9경, 군현제 실시(36개의 군), 도로망 정비, 도량형 통일, 화폐(반량전) 통일, 문자(소전) 통일 - 사상 통제[승상 이사의 건의, 분서갱유(焚書坑儒), 기원전 213~] - 몽염의 홍노 정벌(기원전 215) ⇒ 오르도스 탈환 ⇒ 만리장성 축조
		멸망	진승·오광의 난(기원전 209~)으로 멸망(기원전 206)
	전한(前漢)	[고조](유방)	- 진(秦) 멸망 이후 항우(조)와의 전쟁에서 승리[초한쟁패(楚漢爭霸)] → 중원 재통일(기원전 202) 군국제[중앙(군현제) + 지방(봉건제)] 시행, 법가 통치 완화 - 평성 백등산 전투 패배[⇒ 홍노의 목욕 선우, 평성지치(平城之恥), 기원전 200] 홍노와 화친 조약 체결[형제 관계, 매년 다량의 공물(貢物) 제공, 화번공주(和蕃公主) 파견, 기원전 198]
			- 정치: 군현 확대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경제: 소금(鹽)·철(鐵) 전매, 상공업 통제(중농억상), 한전제 시행 - 사상: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동중서의 건의, 기원전 136),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 - 대외 팽창: 홍노 정벌[대월지와 동맹을 위해 장건 파견(기원전 139), 위창·곽거병 파견(기원전 129~)] 남비엣 정복(9군 설치, 기원전 111), 위만 조선 정복(4군 설치, 기원전 108)
		[무제](유철)	
	신(新, 8~23)	왕망	외척 세력의 왕위 찬탈,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추진 → 호족들의 반발로 실패
	후한(後漢, 25~220)	광무제(유수)	호족의 후원으로 건국(뤼양), 한위노국왕인(漢委奴國王印, 57)
[홍노]	성립		기원전 3세기 후반 유라시아 대륙 북부 초원 지대에서 유목 국가로 등장
	발전	목욕 선우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기원전 209), 동호 정복, 월지를 서쪽으로 축출, 한 고조(유방)에게 승리
	쇠퇴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의 원정 이후 약화 ⇒ 후한 때 남북으로 분열 ⇒ 북홍노는 서쪽으로 이동, 남홍노는 한에 포섭
	정치		최고 지도자 선우 아래 좌현왕, 우현왕 등을 두어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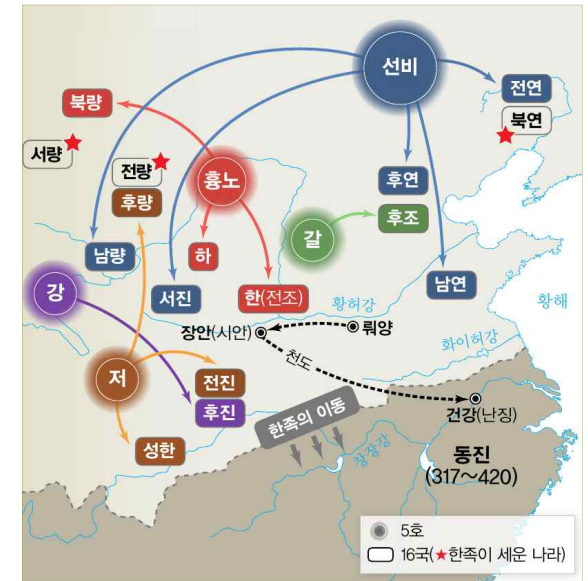
08 국가의 출현(8)			
한반도 · 만주	고조선	성립	• 청동기 문화 기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 제정일치
		발전	•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u>8조의 법 제정</u> ,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燕)과 대립 → 연의 침입(기원전 300)
		<u>위만</u> 조선	• 한 초기 <u>위만</u> 의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194년) ⇨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 한(漢)과 한반도 남부 지역(진, 예)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
	부여	•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기원전 108) → 4군(낙랑·진번·임둔·현도) 설치	
		•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성립	
		[<u>고구려</u>]	
일본 열도	야요이 시대 (BC. 3C~AD.3C)	• 소국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마한·변한·진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분리(祭政分離)	
		• 야요이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소국 등장	
		• 한위노국왕인[노국의 왕이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朝貢)하고 금인(金印)을 받음, 漢委奴國王印, <u>57년</u>]	
		• 3세기경 야마타이국 중심의 30여 개 소국 연합체 등장	
		• <u>히미코</u> 여왕(재위 189~247), 중국의 위(魏, 220~265)에 조공하여 친위왜왕(親魏倭王)의 칭호를 받음(<u>239년</u>)	
		그 나라 또한 본래 남자가 왕으로 70~80년을 이어 오다 왜국에 난이 일어 서로 공격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에 모두 함께 한 여성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라 한다. …… 왜 여왕이 보낸 대부 등이 대방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조공할 수 있도록 청하니, 태수 유하가 관원과 장수를 보내 수도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그해 12월, 조서를 내려 왜 여왕에게 말하였다. “…… 이제 너를 친위왜왕으로 임명하고 금인, 자수를 내리고 이를 봉인하여 대방 태수에게 보내 네게 하사하도록 한다.”	
		- 『삼국지』	

09 흉노 ~ 중국			
기원전 4세기	전국 시대	• 흉노의 변경 습격, 전국 7웅 중 연(燕)·조(趙)는 장성을 축조하며 대비	
기원전 215년	진(秦)	• 시황제가 몽염을 파견하여 <u>오르도스</u> 지역의 흉노 축출 → 장성을 수리·증축	
기원전 200년	한(漢)	• 평성 <u>백등산</u> 전투에서 패배(고조) →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	
기원전 139년		• <u>장건</u> 의 월지 파견 → 서역과 교역(기원전 126)	
기원전 133년		• <u>무제</u>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의 무력 대응 전개 → 위창·곽거병을 파견하여 흉노 정벌(기원전 129~)	
기원전 90년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화친 도모	
기원전 33년		• 고종(유석), 왕소군을 흉노의 호한야 선우에게 화번공주로 보냄	

10	★중국 인구 이동	
	삼국 시대	• 후한 멸망 ➡ 위(魏, 220~265), 촉(蜀, 221~263), 오(吳, 222~280)의 분열 시대
	진(晉)	• 위가 촉을 병합(263)하고 국호를 진(晉)으로 변경(무제 사마염, 위양, 265) ➡ 진의 오 병합(280)
	5호 16국 시대 (304~439)	• 5호(홍노·선비족·저족·갈족·강족)의 이동 ➡ 화북 지역에 여러 국가 건국[전조(홍노, 유연, 304~)] • 팔왕의 난(291~), 영가의 난(307~), 전조의 위양 함락(311), 진(晉)의 장안 천도(313), 한족 일부가 창장강 이남으로 이동, 진의 멸망(316)
	남북조 시대	북조 (北朝) • 북위(선비족, 탁발규, 386~534)의 5호 16국 시대 통일(439년) • 효문제(7, 탁발굉, 재위 471~499)의 한화 정책 ✓ 이주민(유목민)과 토착민(농경민) 사이의 갈등 완화 ✓ 균전제 실시(485), 삼장제 실시(486), 평성(다통)에서 위양으로 천도(493) ✓ 호북·호어 금지, 한족 성씨 사용, 한족과 혼인 → 호한융합(胡漢融合) 북위의 군주가 명을 내려 이르기를 “북쪽 사람들은 땅을 일러 탁(拓)이라 하고 임금을 일러 발(跋)이라 하니, 북위의 선대는 황제(黃帝)에게서 나와 토덕(土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탁발씨라 한 것이다. 토(土)는 중앙의 색깔이요 만물의 시작이니, 마땅히 성을 원씨(元氏)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 『통감절요』 분열 • 동위(534~550) ➡ 북제(550~577) • 서위(535~557) ➡ 북주(557~581) ➡ 수 건국(양견, 장안, 581) 남조 (南朝) ① 동진[東晉, 원제 사마예, 건강, 317~420] ② 송[宋, 유유, 420~478] ③ 제[齊, 소도성, 479~502] ④ 양[梁, 소연, 502~557] ⑤ 진[陳, 진패선, 557~589]

• 토목 기술 전파로 강남 지역 개발, 농업 생산력 발전

✳ 5호의 남하와 한족의 이동



11	한반도 인구 이동	
고구려	• <u>부여족</u> 의 일부인 주몽 집단 남하 ➡ 압록강 중류의 토착 세력과 함께 졸본에서 건국(기원전 37)	
	• 국내성 천도 이후 국력 신장, 낙랑군 축출(313년), 5세기 한반도의 주도권 장악	
백제	• 고구려에서 온조 집단 남하 ➡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기원전 18)	
	• <u>낙랑군</u> 멸망 이후 유민들이 남하하여 발전에 기여,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남부로 세력 확장(369)	
신라	• 고구려와 패권 다툼(371), 남조(<u>동진</u>)로부터 불교 수용·왜와 긴밀하게 교류	
	• <u>고조선</u> 유민 세력 남하 ➡ 경주 지역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기원전 57)	
	•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진한의 주도 세력으로 발전	
	• <u>백제</u> 의 도움으로 남조의 양(梁)과 수교(521), 한강 확보(553), 가야 병합([법흥왕(532)·진흥왕(562)])	

12	일본 열도	
야마토 정권	배경	• 한반도 및 중국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u>도왜인</u> (渡倭人, = 도래인) 증가
	성립	• 4세기경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수립
	발전	• 거대한 무덤(<u>전방후원분</u> , 4~6세기, 대형 고분 시대)을 만들어 권력 과시
		• 5세기 <u>스에키</u> (須惠器) 제작, 6~7세기 <u>아스카</u> 문화 발전 ✓ 중국의 남조, 한반도 삼국과 가야의 선진 문물 수용

✳ 인구 이동의 전개(기원 전후~4세기)



✳ 스에키



13 ★7세기의 동아시아

대립 양상

• 당·신라(동서 세력) ⇔ 돌궐·고구려·백제·왜(남북 세력,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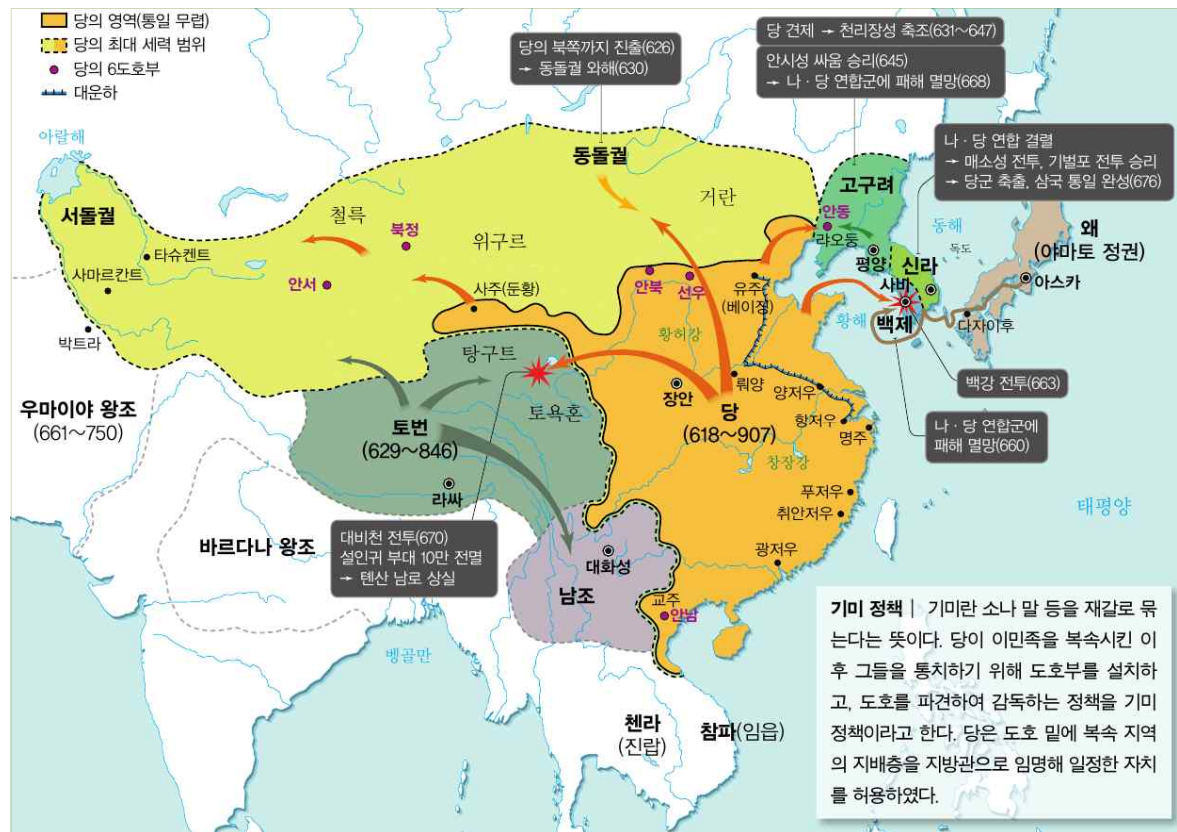
• 나당 연합 결성(태종~진덕여왕, 648년) ⇨ 백제 멸망(660년) ⇨ 백강 전투(나카노오에 황자의 원군 파견, 663년) ⇨ 고구려 멸망(668년)

유인원·유인계 등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를 이끌고, 웅진 동쪽에서 북신의 무리들을 크게 무찔러 지라성 및 윤성·대산·사정 등의 성채를 빼앗고, 많은 무리를 죽이거나 사로 잡았다. 이어서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북신 등은 진현성이 강에 바짝 닿아 있는 데다 높고 험하며, 또 요충의 위치라 하여 군사를 증원하여 지켰다. …… 손인사·유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이끌고 진군하고, 유인계 및 별수 두상·부여웅은 수군 및 군량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회합하여 함께 주류성으로 진군하였다. 유인계가 백강 어귀에서 부여풍의 무리를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사르니, 적들은 크게 붕괴되었다. …… 부여충승·부여충지 등이 백성과 왜의 무리를 이끌고 함께 항복하니, 백제의 여러 성이 다시 귀순하였다.

- 『구당서』

•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 표출(도독부·도호부 설치) ⇨ 나당 전쟁[매소성(675)·기벌포(676) 전투] ⇨ 신라의 삼국 통일(676년)

국제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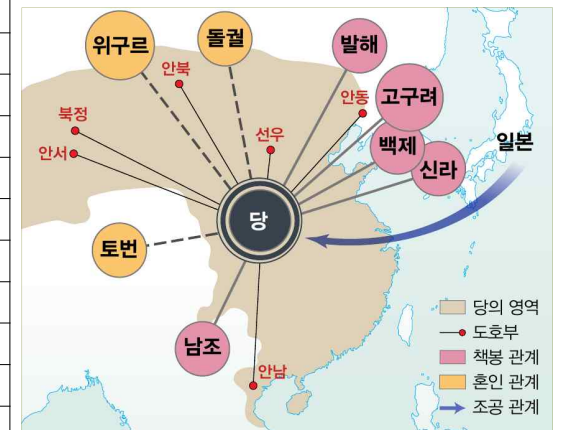


14	★지역 국가의 성립			
	당	• 동아시아 질서 형성, 6개 도호부 (都護府) 설치[안북(630)·안동(668)· 안남 (679~862) 등]		
	통일 신라	• 기벌포 전투(676) 이후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삼한일통(三韓一通) 의식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남북국 시대	
	발해	• 대조영(고왕, 재위 698~719),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하여 동모산에서 진(振震) 건국, 발해 군왕으로 책봉(by 당, 713) • 대무예(무왕, 재위 719~737), 인안(연호), 영토 확장 등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		
일본 열도	아스카 시대 (592~710)	• 쇼토쿠 태자의 섭정 [스이코 천황(여제), 593~ 622 년] ✓ 17개조 헌법[화합을 귀하게 여길 것, 독실하게 삼보(부처·불법·승려)를 숭상할 것, 군주의 명령을 받들 것 등], 관위(冠位) 12계		
		• 견수사(600·607), 견당사 (630),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정관 5년(631)에 왜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태종이 그 길이 먼 것을 불쌍히 여겨, 담당관사에 칙(勅)을 내려 해마다 공물을 바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신주(新州) 자사(刺史)를 보내어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위무(慰撫)하게 하였다. - 『구당서』		
		• 을사의 변(645) ✓ 나카노오에 황자[덴지 천황(재위 668~672)] 주도 아래 궁중에서 소가노 이루카를 암살하고 소가씨 제압		
		• 다이카 개신 (646) ✓ 고토쿠 천황(재위 645~654),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 모든 토지와 백성은 천황의 소유		
		•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나라 시대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헤이조쿄 (平城京)를 건설하고 천도(710)
		헤이안 시대 (794~1185)		• 교토에 헤이안쿄 (平安京)를 건설하고 천도 • 무사(사무라이) 등장, 견당사 파견 중단(894)으로 당풍 쇠퇴 → 가나 문자 등 국풍문화 발달

15 국제 관계 다원화				
조공과 책봉	정의	책봉(冊封)	• 황제가 벼슬을 내리거나 영토의 지배를 인정하는 행위	
		조공(朝貢)	• 충성의 의미로 황제에게 공물(貢物)을 바치는 행위	
	성립	주(周)	•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여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상하 관계	
		한(漢)	고조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 체결
			무제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華夷觀) 확립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책봉의 형식 적용
		후한(後漢)	광무제	• 왜의 노국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책봉(한위노국왕인)
	특징	•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각국의 필요에 따라 체결 → 중원 왕조는 중국 중심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주변국은 정치·경제·문화적 실리 추구		
		•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중단 가능,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15 남북조 시대(중원)			
조공·책봉의 관계 변화	• 한 멸망 이후 각국이 새로운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외교 활동 전개		
	• 강대국 중심의 외교 형식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다원적 외교로 변모		
다원적 외교	초원	• 유연(402~) ⇨ 돌궐 의 성장(유연 격파, 552)	
	남북조	• 주변 소국들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서로 사절 교환 →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 한반도	고구려	• 장수왕(재위 413~493) 때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 체결
		백제	• 주로 남조와 지속적인 조공·책봉 관계 유지
		신라	• 백제 의 중개로 남조[양(梁)]와 조공·책봉 관계 체결(521) → 한강 유역 장악(553년)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남조의 송 (420~478)· 제 (479~502)과 조공·책봉 관계 형성	
		송(宋) 태조 원가 2년(425)에 왜의 찬(讚)이 다시 사신을 보내 표(表)를 올리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찬이 죽고, 아우인 진(珍)이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스스로 칭하기를 사지절 도독 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 육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고 하였다. 표를 올려 정식으로 임명해 주기를 구하므로, 조(詔)를 내려 안동장군 왜국왕에 제수하였다. - 『송서』	
	•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16 ★수·당대 국제 관계		
특징	• 주변국에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유목 민족	특징	- 중국 중심의 책봉 관계 미수용 →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 원함 - 경제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원 왕조 공격 → 화친 정책의 하나로 중원 왕조에서 화번공주 파견
	돌궐	• 수[안의공주· 의성 공주], 당[형양공주]
	[토번]	• 송첸캅포의 통혼 요청(634) → 당의 거부 → 토욕혼 공격 → 문성 공주 파견(당, 640)
	[위구르]	• 당 덕종(재위 780~805)의 함안공주 파견(788)
만주·한반도	특징	-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수용(정권 안정과 선진문물 도입, 군사적 위협 대치) -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 → 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
	발해	- 산동반도 공격(무왕, 732) - 발해 국왕으로 책봉(by 당, 문왕, 762년)
	통일 신라	- 성덕왕(재위 702~737) 때 혈맹 관계 회복 - 당의 요구로 발해의 후방 공격(김사란, 733)
일본	특징	- 당과 조공 관계만 체결, 선진문물 수용을 위해 견당사(630~894) 파견 - 신라, 발해와도 사신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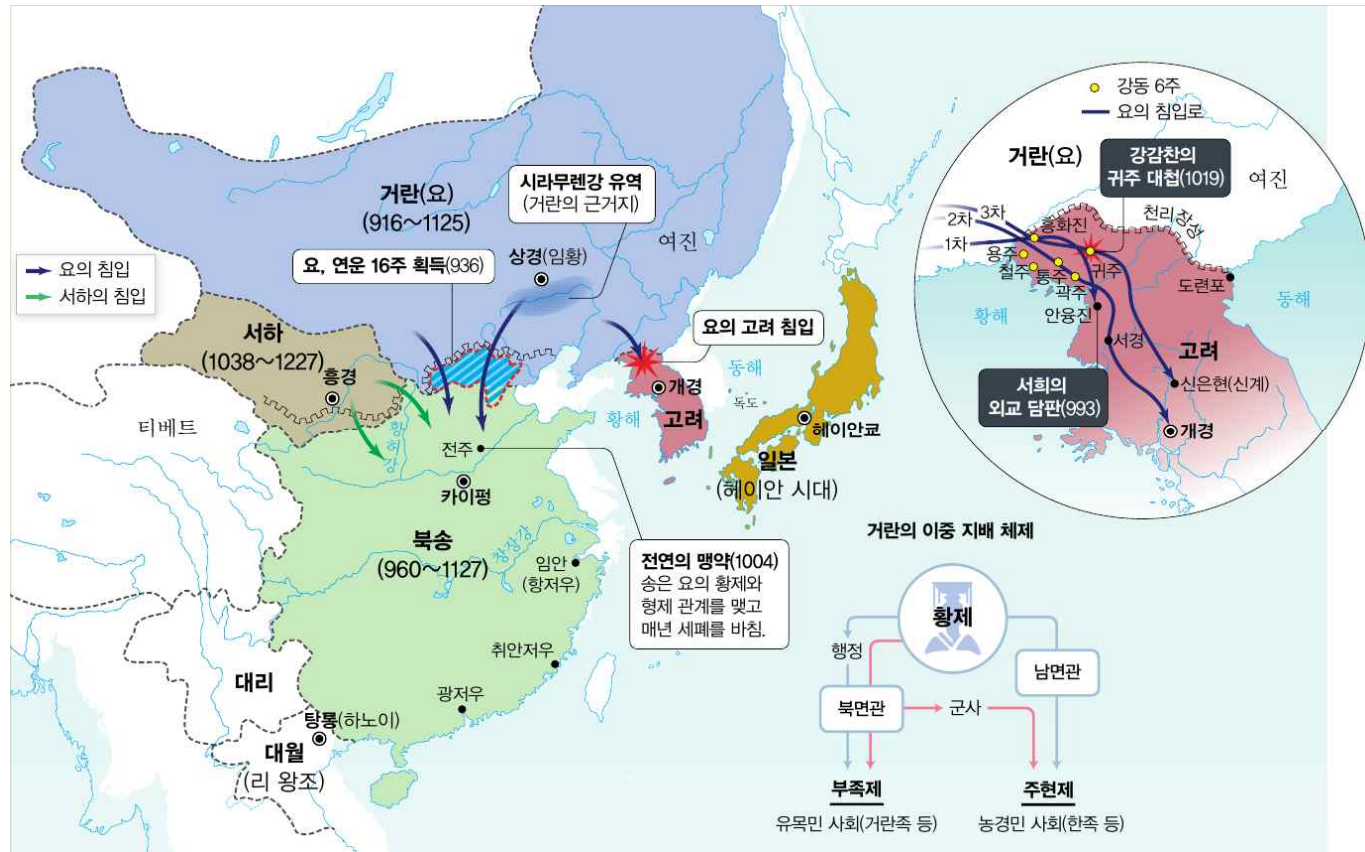


17	자국 중심 천하관	
	특징	• 동아시아 각국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자국을 중심에 놓고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을 활용 • 독자적 연호와 군주 칭호 사용
	사례	• 광개토대왕릉비문(414), 백제 동성왕의 탐라 복속(498), 왜의 국서(건수사, 쇼토쿠 태자, 607)

18	국제 질서 재편		
10세기	북방	• 라오허강 상류 지역에서 거란 부족의 통합(916)	
	중원	5대 10국	• 당 멸망 이후 주전충의 후량(後梁, 907~923) 건국으로 분열 시대 시작
		송(宋)	• 조광윤의 건국[카이펑](개봉), 960] → 분열 시대 종식·재통일[979년(태종 4)]
	한반도	• 후삼국 시대 시작(901) → 고려 건국(918) → 발해 멸망(926) → 후삼국 통일(936)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일본	• 헤이안 시대 전개(헤이안쿄, 794~)	
11세기	북방	• 탕구트족의 서하 건국(흥경, 1038)	
	중원	북송	• 전연의 맹약(1004), 경력의 화약(1044), 왕안석의 신법(변법) 추진[1069년(신종 2)]
	한반도	고려	• 거란의 제2차(1010)·제3차(1018) 침입
12세기	북방	• 금 건국(여진, 상경 회령부, 1115), 요 멸망(1125)	
	중원	• 북송 멸망(정강의 변, 1126), 남송 건국[임안](항저우), 1127]	
	한반도	고려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일본	• 가마쿠라 막부 수립(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185) → 쇼군 책봉(1192)	

19	★북방 민족의 성장	
거란(요)	건국과 성장	• <u>야율아보기</u>(재위 916~926)의 부족 통합 ➡ <u>발해</u> 정복(926) ➡ 야율덕광(재위 926~947)의 <u>연운 16주</u> 확보(from 후진 석경당, 936) ➡ 국호 요(수도 상경 임황부, 938) ➡ 야율용서(성종, 재위 982~1031)의 <u>전연의 맹약</u> 체결[국경선 유지, 형제 관계, 세폐 지급, 1004년(북송 진종 7)] 경덕(景德) 원년(1004) 대송(大宋) 황제는 삼가 대거란 황제께 맹세의 문서를 보냅니다. 서로 양해한 약속을 함께 준수하고, 또 성실하게 평화의 맹약을 받들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토산 물품의 구입비와 군사비로써 <u>매해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거란(요)에 보내는데</u>, 이를 위해 따로 사신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다만 삼사(三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웅주(雄州)에서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자치통감장편』
	정책	• 이원적 통치 정책[<u>북면관제</u>(재상부·북추밀원, 유목민), <u>남면관제</u>(남추밀원·주현제, 농경민)]
		• 거란 문자 사용 등 고유 관습 유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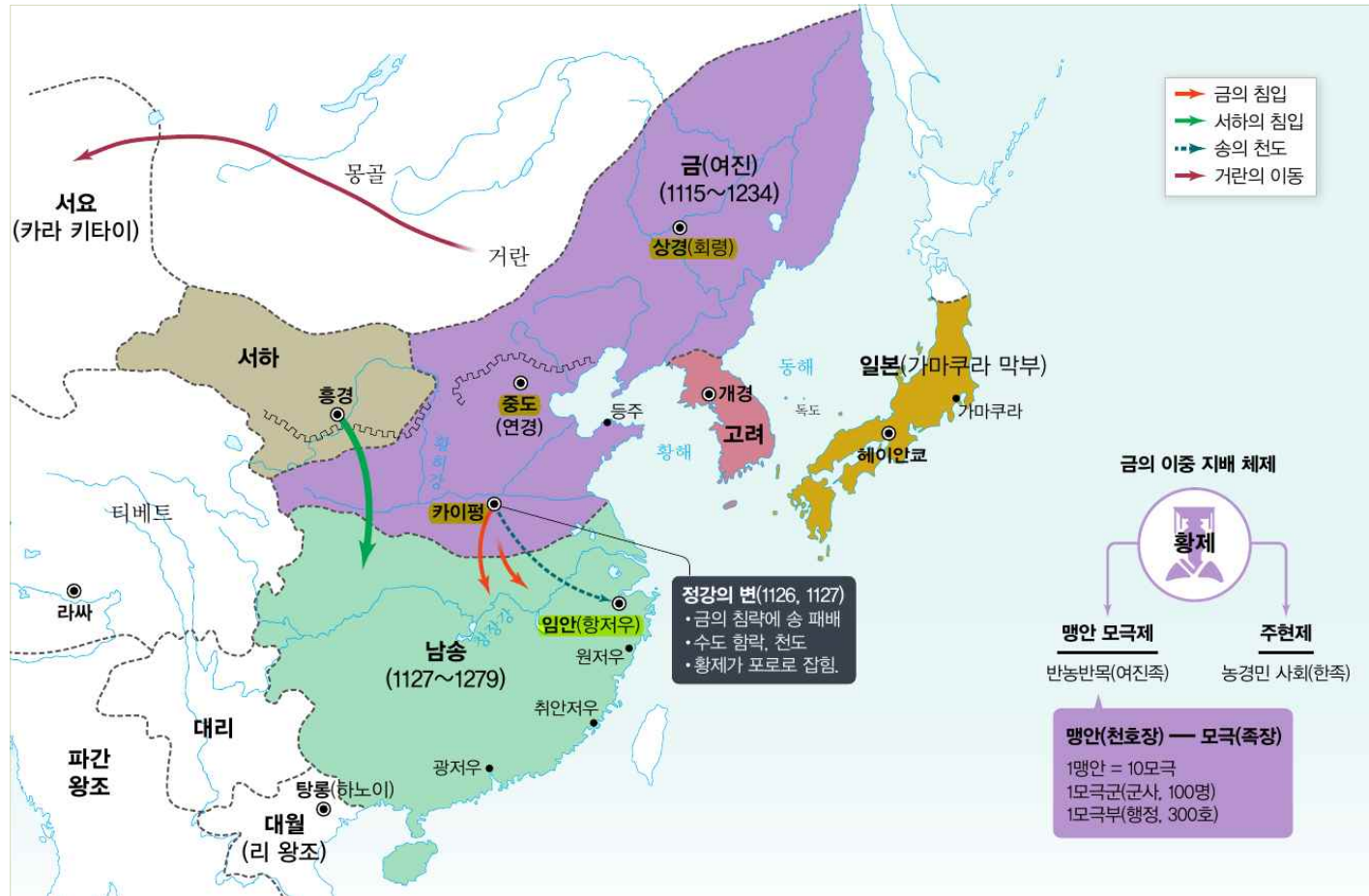
❖ 거란(요)의 팽창과 11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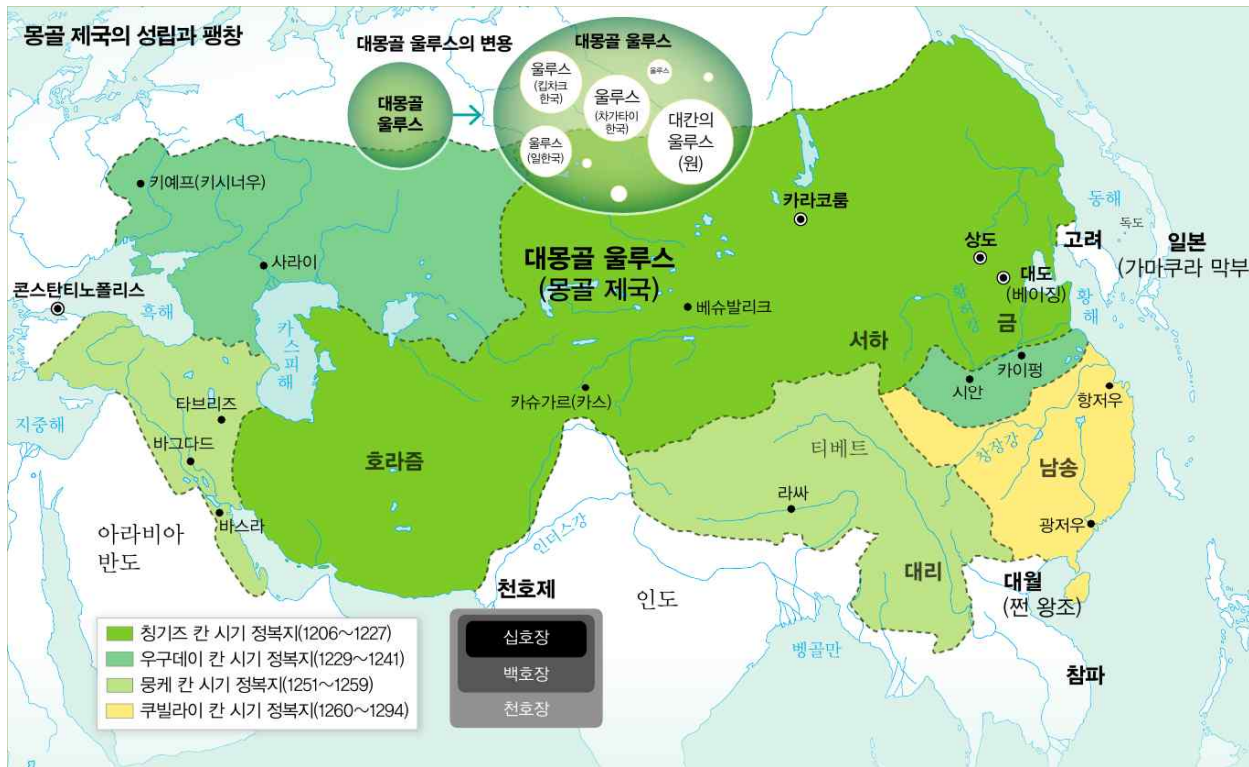
19 ★북방 민족의 성장		
탕구트(서하)	건국	• 경종(이원호), 국호 서하(대하), 칭제건원, 영하 흥경 부(寧夏興慶府), 1038
	성장	• 비단길을 통해 동서 무역 전개
		• 거란 과 조공·책봉 관계
		• 책봉과 교역을 둘러싸고 북송과 전쟁 이후 강화 조약 체결(경력의 화약, 1044) ✓ 서하 이/가 송 에 칭신, 송 은/는 은과 비단, 차 등을 세폐로 지급
		• 여진 과 군신 관계 체결
	정책	• 서하 문자 사용 등 고유 관습 유지 노력

19	★북방 민족 성장		
여진(금)	건국과 성장		• 완연 <u>아구다</u> (재위 1115~1123)의 부족 통합(상경 회령부) ⇒ 북송과 동맹(1120) ⇒ 중경·연경 점령(1122)
			• 거란 정복(1125) ⇒ 북송 정복(1126) ⇒ 중도 천도(1153·1161) ⇒ <u>카이펑</u> 천도(1157) ⇒ 몽골과 강화(1214) ⇒ <u>카이펑</u> 천도(1215)
			• 소흥화의[~ <u>남송</u>] 고종, 군신 관계, 국경선 합의, 비단 25만 필은 25만냥을 세폐로 지급, 1142]
			• <u>서하</u> , <u>고려</u> 와 군신 관계 체결
	정책		• 이원적 통치[<u>맹안모곡제</u> (여진족·거란족), 주현제(한족 등)]
			• 여진 문자를 창제하고 고유의 풍습을 지키고자 노력 → 점차 중국 문화에 동화

* 여진(금)의 팽창과 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20	고려의 대외 관계	
	거란의 침입	- 제1차(993) •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화친 → 강동 6주 획득(994) - 제3차(1018) • 강감찬의 귀주 대첩(1019) → 친선 관계 유지(고려가 거란에 조공)
	금	- 동북 9성 •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축조(1107) → 반환(1109) 군신 관계 • 요를 정복한 후 사대 관계 요구 → 이자겸, 척준경 등의 수용(1126)
	송	• 국교(962)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 지속 ⇨ 공식 외교 관계 단절(1019) ⇨ 재개(1071)
21	일본의 대외 관계	
	[헤이안] 시대	• 견당사 파견 중지(894년) → 10세기 이후 주변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축소 • 11세기 후반 이래 지방관이 파견한 사신과 지방 상인 등을 통해 고려와 교역 ✓ 수출(수은, 유황, 칼) ⇄ 수입(식량, 인삼, 서적) • 12세기 중엽부터 남송의 동전이 대량으로 유입 • 12세기 후반 쓰시마섬과 고려 사이에 조공 형식의 무역 관계 형성
	[가마쿠라] 막부	•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소극적, 막부가 중국 향로를 장악하여 무역의 주도권 확보
22	★몽골 제국의 등장	
	성립	• 몽골 지역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 통합(1204) →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 예게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 수립(1206)
	발전	• 칭기즈 칸(재위 1206~1227) ✓ 천호·백호제에 기반하여 군사력 강화 ✓ 서하 복속(1209), 금과 강화 조약 체결(~위소왕, 1214), 베이징(연경) 함락(1215), 호라즘 정벌(비단길 장악, 1220), 서하 정복(1227) • 오고타이 칸(재위 1229~1241) ✓ 고려 침공 시작(1231), 금 공격 재개(1232) ⇨ 카이펑 정복(1233) ⇨ 채주(蔡州) 점령과 금의 애종 포위(1234) ⇨ 금의 말제 살해와 금 멸망(1234) • 쿠빌라이 칸(재위 1260~1294) ✓ 국호 '대원'(1271),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천도(1272) ✓ 고려 복속(1270), 남송 정복(유목 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 지배, 1279), 가마쿠라 막부 원정(1274·1281), 편 왕조 공격(1284·1287, cf) 1257(몽케 칸) 의관(衣冠)은 고려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도 고치지 말라. 우리가 파견하는 사신은 오직 조정에서만 파견할 것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금지시킬 것이다. 옛 수도인 개경으로 옮기는 것은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해야려서 하라.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가을을 기한으로 해서 철수할 것이다. 본래 배치한 다루가치 일행은 모두 서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우리에게 의탁하고 있는 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여기로 온 사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이후로는 여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자들은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고려사』



22 ★몽골 제국의 등장									
통치 방식	• 몽골 제일주의[몽골인이 정치·군사 담당, 색목인이 재정 담당, 한인과 남송의 한인은 피지배층] • 지방에 행중서성(행성) 설치, 다루가치 파견								
교역망의 통합	<table border="1"> <tr> <td>교통로</td><td>• 초원길, 비단길 등의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td></tr> <tr> <td>[역참]</td><td>• 제국 전역에 도로망 건설 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군사적 목적, 중앙과 지방 교류 활성화, 동서 통합 촉진</td></tr> <tr> <td>[시박사]</td><td>• 항저우·취안저우·칭다오 등에 설치, 해상 무역선 관리 → 고려·일본·베트남·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의 형성</td></tr> <tr> <td>[교초]</td><td>• 지폐, 몽골 제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ex] 중통원보(中統元寶)], 은과 교환 가능</td></tr> </table>	교통로	• 초원길, 비단길 등의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역참]	• 제국 전역에 도로망 건설 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군사적 목적, 중앙과 지방 교류 활성화, 동서 통합 촉진	[시박사]	• 항저우·취안저우·칭다오 등에 설치, 해상 무역선 관리 → 고려·일본·베트남·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의 형성	[교초]	• 지폐, 몽골 제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ex] 중통원보(中統元寶)], 은과 교환 가능
교통로	• 초원길, 비단길 등의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역참]	• 제국 전역에 도로망 건설 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군사적 목적, 중앙과 지방 교류 활성화, 동서 통합 촉진								
[시박사]	• 항저우·취안저우·칭다오 등에 설치, 해상 무역선 관리 → 고려·일본·베트남·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의 형성								
[교초]	• 지폐, 몽골 제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ex] 중통원보(中統元寶)], 은과 교환 가능								
동서 교류 활성화	• 서아시아의 천문학·역법·수학·지도학 등 전래 → 수시력 제작(곽수경, 1281) • 마르코 폴로[1274년 입국, 『동방견문록』], 이븐 바투타[1344년 입국, 『삼대륙주유기(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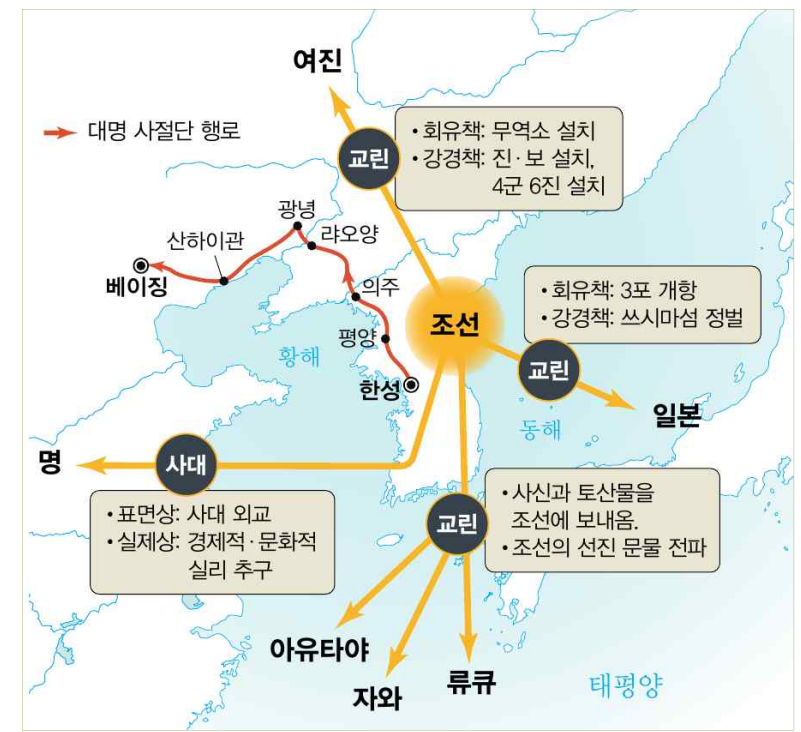
23	★대몽 항쟁	
고려	• 몽골 사신 피살(1225) ➡ 제1차 침입(1231) ➡ 강화도 천도(1232) ➡ 개경 환도(몽골과 강화, 1270) ➡ 삼별초의 저항(1270~1273)	
	• 부마국의 지위(1274~), 정동행성 설치(1280), 민족의식 강화(일연, 『삼국유사』, 1281)	
일본	• 여·원 연합군의 원정(1274·1281) ➡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태풍 ➡ 신국 사상 확산	
편 왕조 (1225~1400)	• 몽골이 세 차례에 걸쳐 공격[1257 · 1284(격장사) · 1287(바익당강 전투)] ➡ 편흥다오(?~1300)의 격퇴	
	• 『대월사기』 저술(1272),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 몽골에 조공(朝貢)	

※ 10~14세기 동아시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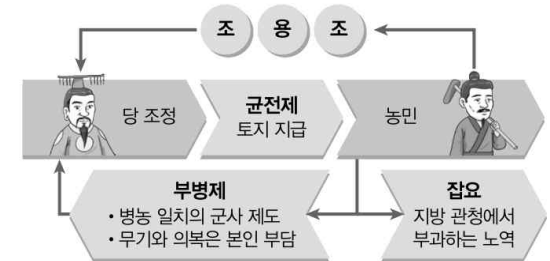


24	★국제 질서의 재편	
	수립과 정책	• 흥건적 출신의 주원장[태조 홍무제(재위 1368~1398)]이 난징을/를 도읍으로 건국 •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하고 한족 문화 회복 노력
	발전	• 성조 영락제 (3, 연왕(燕王) 주체, 재위 1402~1424) ✓ 정난의 변(해중 건문제의 제위 탈취, 1399~1402)으로 즉위 ✓ 자금성 건설, 베이징 천도(1421), 몽골 공격, 『영락대전』 편찬(類書, 1407), 대월 복속(1407) 황제는 난징의 남교(南郊)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봉천전에서 제사를 마쳤음을 고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 예부상서 이지강 등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제왕이 천하를 평정하거나 혹은 외번(外藩)에서 들어와 대통을 이어받으면, 나라를 처음 시작했던 땅을 모두 높이고 존중하였습니다. 생각 하건대 북평(北平)은 황상께서 운을 타고 왕도(王道)를 흥하게 했던 땅이니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가하다.”라고 하였고, 이로부터 북평의 이름을 베이징으로 바꾸었다. — 『명태종실록』 ✓ 정화의 항해[1405년(영락제 3)~1433년(선덕 8)] → 므라카 왕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명에 조공

24	★국제 질서의 재편		
	명	발전	• 조선, 여진, 류큐(琉球, 1429~1879), 일본 등 주변국에 조공·책봉 관계 요구
	조선	수립과 발전	• 위화도 회군(1388년) ⇨ 신흥 무인 세력과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연합 ⇨ 고려의 멸망과 건국(1392) ⇨ 한양 천도(1394)
			• 명과 대립(요동 정벌 추진, 1396) ⇨ 조공·책봉의 사대 관계 형성(태종, 1401년)
	무로마치 막부	성립	•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 쇠퇴 ⇨ 멸망(1333)
			• 고다이고 천황의 친정(1333~1336) ⇨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 수립(무로마치, 1336)
		내란	• 남북조의 분열(1336~ 1392년)
			✓ 교토의 천황(북조)을 내세운 무로마치 막부와 요시노로 피신한 천황(남조)의 대립
			•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재위 1368~1394) 통합 ⇨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발전	• 명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 1401)
			• 명과 감합 무역 전개(勘合貿易, 1404~1547)



25	율령(①)			
의미	의미	•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	
		영(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 위주 법률	
	발전	전국 시대	• 기원전 359년 법가 사상이 상앙(?~기원전 338)이 부국강병의 변법 추진	
		진(秦)	• 시황제(재위 기원전 221~기원전 210) → 승상 이사(?~기원전 208)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치에 입각한 정책 시행	
		한(漢)	• 법가 와 유가 의 결합 ✓ 진(秦)의 법률 계승, 유교 윤리 강조(군주에 대한 충성, 가족·향촌 질서 유지)	
			무제	• 기원전 136년 동중서의 건의 수용 →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 태학(太學) 설립 평소에 선비를 길러주지 않으면서 뛰어난 이를 구하는 것은 마치 옥(玉)을 쪼아 다듬지 않고서 화려한 무늬가 만들어지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비를 기르는 데는 태학(太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태학은 어진 선비가 배출되는 곳이며 교화의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 신이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태학을 일으키고 사리에 밝은 스승을 배치해 천하의 선비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주 시험을 치르고 질문을 던져 그들이 가진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재와 준재를 마땅히 얻으실 것입니다. - 『한서』, 「동중서전」
수·당	수·당	특징	• 율령에 격 (율령의 추가·보완), 식 (구체적 시행 세칙) 추가	
		율(律)	• 『당률소의(唐律疏議)』(653) ✓ 태·장·도·유·사의 5종 형벌 ✓ 귀천(貴賤)·존비(尊卑)·장유(長幼)에 따라 차등 적용	
		영(令)	• 중앙(3성 6부), 지방(주현제), 감찰(어사대), 교육(국자감) • 관리 선발(이부 주관, 과거제) • 균전제(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 지급) • 조·용·조(토지를 받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한 세금) • 부병제(성인 남자의 군역 의무)	



25	★율령(②)			
동아시아 전파	특징	• 통치 기구와 이념, 관료 선발과 교육 제도에 영향		
		•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영향		
		• 각국의 신분 질서와 관습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국의 율령 수용		

25 ★율령(㉔)

한반도	발해	• 당과는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3성(정당성 ·선조성·중대성) 6부제 시행, 감찰(중정대), 출판·서적 관리(문적원), 교육(주자감)
	통일 신라	• 골품제 유지 , 국학 설립(682), 독서삼품과 실시(788),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촌락 문서 작성
	일본	• 다이카 개신[소가씨 제거(을사의 변) 후 당의 율령 체제 수용 시도, 646]
		• 다이호 율령(701), 요로 율령(712 → 757)
일본		✓ 덴무 천황(재위 673~686)의 교서 → 문무 천황 (재위 697~707)
		✓ 2관(신기관 ·태정관) 8성(중무성 · 식부성 ·치부성·민부성, 병부성·형부성· 대장성 · 궁내성), 감찰(탄정대), 오위부(궁성 경비)
		✓ 기나이(畿内), 7도(道), 국[국사(國司)]·군[군사(郡司)]·리[이장(里長)]
* 동아시아 각국의 중앙 통치 제도		
동아시아 전파	3성 6부제	
	3성 6부제	
	2성 6부제	
	2관 8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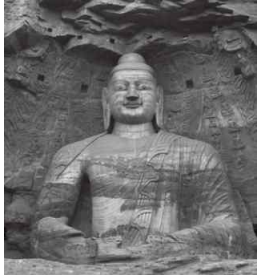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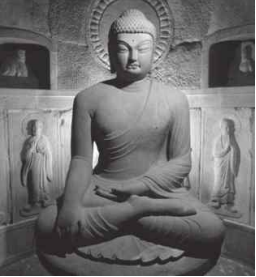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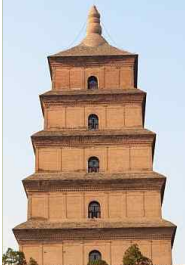
26 과거제의 발전

중국	수	• 문제(재위 581~604), 최초 시행(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관리 후보 선발, 587)
	송	•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 (殿試) 제도 정례화(975)
한반도	고려	• 광종(4, 재위 949~975)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958) → 문과, 승과, 잡과
	조선	• 문과, 무과, 잡과 실시
영향	• 새로운 학자 관료층의 성장(사대부, 양반 등),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 강화	

27 불교의 성립과 수용			
성립	대승 불교	- 기원전 1세기경 일반 신도(재가자)를 중심으로 이타행(利他行) 강조 -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慈悲)로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	
수용	중원	후한 때 중앙아시아를 거쳐(비단길) 화북에 전파(67)	
	한반도	- 삼국 시대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에서 수용 ✓ 고구려(from 전진, 372), 백제(from <u>동진</u>, 384), 신라[from 고구려(457)·양(521), 이차돈의 순교와 공인(법흥왕, <u>527</u>)]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교종 기반)	
	일본	<u>백제</u>를 통해 전래[노리사치계, 불상과 불경 전달, 552], 토착 신앙(신토)과의 갈등 속에서 보급 → 내전 발생	

27 불교의 확산			
중원	남북조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당	중국 불교문화의 황금기	
한반도	통일 신라	<u>원효</u>(아미타 신앙), 의상(아미타 신앙·관음 신앙) 등에 의해 대중화	
일본	아스카 시대	- 왕실과 유력 가문의 권력 과시를 위해 대규모 사찰 건립 - 한반도의 영향으로 불교문화 발달 ✓ <u>호류사</u> 건립(쇼토쿠 태자, 607),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호류사 백제 관음상	
	나라 시대	<u>쇼무 천황</u>(재위 724~749), 노사나불 건립의 조(743), <u>도다이사</u>(東大寺) 건립(745)	

27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국가 불교	<u>왕즉불</u>(王即佛, 군주가 부처)의 논리로 왕권 강화 - 대규모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 중원[<u>원강</u>(460~)·룽먼 석굴 사원(493~)], 한반도[황룡사·황룡사 9층 목탑, 불국사·석굴암], 일본[도다이사·도다이사 대불] - 국가의 지원과 주도로 대장경(大藏經) 제작		
	중원	『부모은중경』(당, 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한 새로운 경전)	
	한반도	산신·칠성·용 신앙과 결합, 사찰 내에 산신각·칠성각 건립	
	일본	신토의 신들이 부처나 보살로 표현(하치만 대보살 등) → <u>신불습합</u>(神佛習合)	
선종 발달	특징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參禪) 중시	
	확산	신라 하대(호족의 지원), 가마쿠라 막부 시대 무사 사회에서 유행	

27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국가 불교 · 토착화	• 우리나라의 대업은 분명히 여러 부처가 지켜 준 데 힘을 입은 것이다. 그렇기에 선종과 교종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파견해 불도를 닦도록 하여 각각 그 업(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 『고려사』 • 쇼무 천황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실하게 불교를 신앙하였다. 도다이사를 건립하고 금동 불상을 만들었다. 또한 고쿠분사(國分寺)를 세워 국토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고 『법화경』·『금광명최승왕경』을 강독하게 하였다. - 『신황정통기』     〈원강 석굴 사원의 대불〉 〈석굴암 본존불〉 〈도다이사 대불〉 〈하치만 보살상〉
27 불교문화의 발전	
예술·건축	• 불상, 불화(회화 기법의 발전), 범종 등 • 사찰, 불탑의 제작[중국의 전탑(대안탑), 한국의 석탑(석가탑), 일본의 목탑(호류사 5층 목탑)], 기단, 주춧돌, 기와 사용     〈6세기 동아시아의 불교 교류〉 〈대안탑(7세기)〉 〈호류사 5층 목탑(7세기)〉 〈석가탑(8세기)〉
인쇄술	•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 이전),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770) • 송·요·금의 대장경, 고려의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 동골, 1236~1251)

28	★승려들의 활동	
문화 교류		• 사찰(교류와 지식 전파의 장소), 승려(구법 활동, 지식인으로 국제 교류)
[법현](337~422)	동진	• 인도 기행,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달마(?~528)	인도	• 중국 입국(520), <u>선종</u> 창시(6세기)
혜자	고구려	• 도일(595), 쇼토쿠 태자의 스승, 백제 승려 혜충과 함께 호코사(法興寺)에서 포교 활동
[현장](602~664)	당	• 인도 순례(사막길, 629~), 불경을 가져와 번역 • 『<u>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u>』 저술, <u>대안탑(大雁塔)</u> 창건(652)
원효(617~686)	신라	• 아미타 신앙 보급으로 불교 대중화
의상(625~702)		• 당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 개창(671)
[감진](688~763)	당	• 753년 일본행(실명) → 754년 나라 도착 천보 원년(742) 대화상(大和尚)이 양저우 대명사에서 승려들에게 강론하였다. 견당사의 일원으로 온 요예이와 후쇼가 대명사에 가서 대화상의 발아래 절을 하고 방문한 뜻을 말하였다.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져 우리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있지만 법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원컨대 바다 건너 동쪽으로 와서 교화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대화상은 이듬해부터 다섯 번 행장을 꾸려 도항을 도모하다가 표류하여 되돌아갔지만, 본래 품은 뜻을 버릴 수 없어 드디어 여섯 번의 시도 끝에 도착하였다. - 『당대화상동정전』 • 고구분사의 총본산인 도다이사를 근거지로 계율을 전해 수계(受戒)하는 방식을 알려 줌, 도쇼다이사(唐招提寺) 창건(759)
[혜초](704~787)	신라	• 당 유학, 인도 도착(바닷길, 723), 『 <u>왕오천축국전</u> 』 저술(727)
[엔닌](794~864)	일본	•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 입국, 산둥반도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기숙, 장보고의 도움으로 귀국 • 『<u>입당구법순례행기</u>』 저술(838~847)

29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당의 개방성		• 국제도시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上京城), 일본 <u>헤이조쿄</u>(平城京)·헤이안쿄(平安京)에 영향] • 각국의 사신[예빈도(禮賓圖)]·상인·승려·예술가·유학생 등 외국인 체류, 신라방·발해관 등 설치
교류 활성화		• 신라 장보고가 <u>청해진</u>(828~851)을 거점으로 당-한반도-일본을 잇는 해상 교역 주도 • 발해는 당(영주도·조공도), 신라(신라도), 일본(일본도), 거란(거란도) 등과 교류
일본의 견당사		• 당의 문물 수용(<u>630~894</u>), 일본에 <u>당풍</u> (唐風) 유행
동아시아 문화권		• <u>율령</u> · <u>유교</u> 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한자 등 공유

30	★성리학	
송 이전의 유학	한	• 유학의 관학화(통치 이념 역할), 훈고학(訓詁學) 발달(·: <u>분서갱유</u>)
	남북조	• 불교, 도교의 융성으로 유학 쇠퇴
	수·당	• 과거제 시행으로 부흥, 『 <u>오경정의</u> 』 편찬으로 훈고학 집대성(<u>공영달</u> , 653)
성리학의 성립	배경	• 사대부의 성장(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황제 중심의 관료 체제하에 지배층으로 등장) • 요, 금의 압박으로 한족의 민족의식 강화[중화사상, <u>화이관</u> (華夷觀) 중시]
	특징	• 유학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 <u>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u> 하는 신유학 대두
	집대성	• 남송의 유학자 <u>주희</u> (= 주자, 1130~1200) ✓ 성즉리(性卽理) 주장, 거경궁리(居敬窮理)와 <u>격물치지</u> (格物致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 <u>근사록</u> (近思錄)』(1175) ✓ 오경보다 사서 중시 → 『사서집주』(논어집주·맹자집주· <u>대학장구</u> ·중용장구, 1177)
		* 『<u>대학</u>』은 공자가 남긴 글로서,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이다. 곧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들의 글을 배우는 첫 번째 순서가 『대학』이며, 『논어』와 『맹자』가 다음이다. 『대학』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면 깨달음을 얻는 데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 거경궁리(居敬窮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성리학에서 강조한 수양 방법이다. <u>잡념이나 망상을 끊은 상태에서 마음에 본래 있는 이(理)를 밝히는 것을 거경궁리라 하고,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격물치지라고 한다.</u>
영향		• 『 <u>주자가례</u> 』(朱子家禮), 『소학(小學)』(유자징, 1187)의 보급 → 동아시아에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 군신 간의 의리, 대의명분 중시 → 화이론 강화,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보급	서원	• 선현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사설 교육 기관, 사대부 결집에 영향, ex) 백록동 서원(1543)
	[<u>향약</u>]	• 상부상조 정신과 유교 윤리가 결합된 향촌(鄉村)의 자치 규약
		• 서민에게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되는 데 기여
		• 명·청대 신사(紳士)층이나 조선 시대 양반층에 의해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

30	★성리학의 확산(①)	
한반도	전래	• 고려 후기 안향(1243~1306) 등이 원(元)으로부터 도입·소개(1290)
		• 고려 말 <u>신진사대부</u> 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 → 불교와 권문세족 비판
	발전	•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 통치 이념, 각종 사회 의례의 기준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우주론과 인간 심성 문제 논쟁, 학파를 통해 봉당(朋黨) 형성

30	★성리학의 확산(2)		
한반도	발전	• <u>사림</u> (士林)의 성장	
		✓ 향약(조광조, 여씨 향약, 1517)의 보급과 서원(주세붕, 백운동 서원, 1543) 설립	
		✓ 이황(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성학십도』), 이이(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 개혁 방안 제시, 『격몽요결』)의 성리학 연구	
		•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산	
		✓ 『 <u>주자가례</u> 』에 의한 관혼상제 확산, 부모 삼년상, 가묘(家廟)와 사당(祠堂) 건립, 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 확산, 친영제 보편화	
일본	전래	• <u>가마쿠라</u> 막부 후기에 전래되어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발전	• 에도 시대에 본격화	
		• 후지와라 세이카(1561~1619)	
		✓ 조선의 강항(1567~1618)과 교유, 『 <u>사서오경왜훈</u> (四書五經倭訓)』 간행(1599)	
		• <u>하야시 라잔</u> (1583~1657)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등용,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	
		✓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 신분 사회의 틀 강화(『삼덕초(三德抄)』 저술)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 관계 또는 전후 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진실을 단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禮)의 마음으로 꼭 채운다면 군신 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31 ★양명학의 성립			
등장 배경	• 성리학이 과거 합격에 치중(성리학의 교조화) →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집대성	• 왕수인(호 '양명', 1472~1528)		
	✓ <u>심즉리</u> (마음이 곧 이, 心即理) 강조, 『전습록(傳習錄)』 저술(1511)		
	✓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앎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u>지행합일</u> (知行合一) 주장		
	* 이(理)란 마음의 조리이다. 이가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孝)가 되고,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忠)이 되며, 친구에게 발현되면 믿음이 된다.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나의 한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다. - 『양명전서』 *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고 사건도 없으며 이(理)도 없고 의(義)도 없으며 선(善)도 없다. 내 마음이 순수한 천리(天理)의 상태일 뿐 인위적인 잡스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선이란 사물에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사물을 처리함이 의롭다는 말은 내 마음이 그 적절함을 얻은 것이다. 의는 밖에서 받아들여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양명전서』		
발전	• 사대부분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치게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흐르는 폐단		